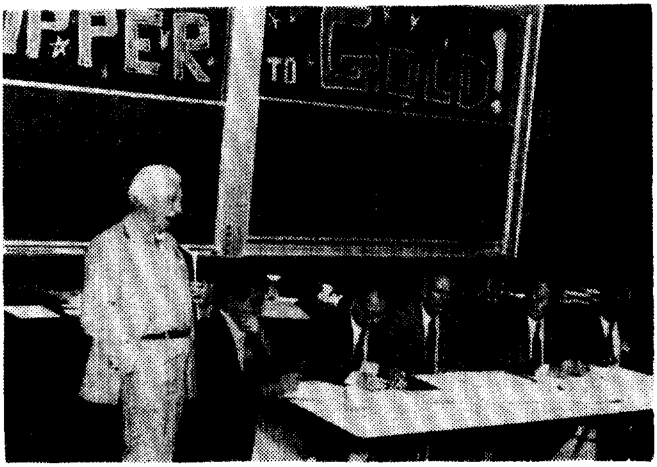
제 17 회 국제과학사회의 참석보고

송 상 용

4년마다 열리는 국제과학사회의가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에서 있었다. 실은 미국이 지난번 회의를 버클리에서 할 것을 희망했지만 투표에서 부꾸레슈띠에게 져서 이번에야 차례가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제10회 회의(1962)가 이더커에서 있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두번째 모임을 유치한 셈이다. 회의는 1985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렸다.



IUHPS 총회. 오른쪽부터 수바라야파감사(인도), 부싱 간사보(동독), 허버트회장(미국), 세간사(캐너더). 서 있는 이는 코언 전 회장(미국).

한국에서는 金容雲(한양), 송상용(한림), 朴星來(외국어), 金永植(서울), 李成奎(인하), 郭賢泰(국민), 盧奎來(연세), 김기윤(오클러호머), 김동원(하버드) 등 여덟 회원이 참석했고 논문발표를 신청했던 金東炫(성균관)회원은 가지 못했다. 14회(東京-京都, 3명), 15회(에딘버러, 1명), 16회(부꾸레슈띠, 4명)에 견주면 굉장한 발전이었다.

회의를 주관한 버클리 사학과 한(R. Hahn)과 하일브론(J. L. Heilbron)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국립과학아카데미를 대표한 노벨상 수상자 세그레(E. Segrè)와 유네스코 대표, 부총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과학사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는 쿤(T. S. Kuhn)의 기조연설을 들었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들

회의에는 전세계에서 천여명이 모였고 8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청만 하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과학분과는 79개로 늘어났는데, 물리과학의 이민과 국제교류, 나치 독일과 군국 일본의 과학·기술·의학, 상대론의 기원 17·18세기의 생물과 철학 등 다채로운 이름이 붙었다. 미리 조직된 21개의 심포지엄은 유전학과 사회, 과학에서의 여성, 태평양지역의 서구과학, 과학과 문학과 상상력, 과학과 종교, 과학기술정책과 개발 등이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4사람이 발표했다. 朴星

來・金永植회원이 처음으로 초청연사가 되어 심포지엄에서 논문을 읽은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박교수는 심포지엄 6.2b(자연지식의 교문화적 전달과 그 사회적 의의)에서 「과학사상의 전파와 언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서양과학을 중국, 일본을 통해 간접으로 수용한 데 따른 용어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다. 김교수는 심포지엄 16.3(과학과 종교에 관한 변화하는 견해들)에서 「전통중국의 과학과 종교 관계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을 소개했는데 중국에서의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서양과는 전혀 다름을 지적해 청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金容雲・송상용회원의 「한국과학사에서의 범패러다임」과 「중앙공업연구소, 1946-1961」는 각각 Qg.(과학에서의 혁명들)와 Pd.(전쟁과 평화시의 핵기술)에서 발표되었다. 분과 배정이 잘못되었으나 문제는 없었다.

숙소 앞에 선 한국 회원들. 왼쪽부터 선 이 박성래・김영식・김용운・송상용, 앉은 이 김기윤・이성규・노규래회원

회의는 빈틈없이 잘 짜여져 불편이 없었으나 발표장이 넓은 캠퍼스에 흩어져 있어 옮길 때는 뛰어 다녀야 할 적도 많았다. 발표된 논문의 3분의2가 최근과학사에 집중되어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발표내용은 극히 다양해 과학영화 상영, 시낭독도 들어 있었다. 노벨상 수상자 글레이저(D. Glaser)의 공개강연과 국제과학사아카데미(Académie Internationale d'Histoire des Sciences)가 주최한 화이트 2세(L. White, Jr.)의 특별강연은 많은 청중을 모았다.

회의 본부에는 50여개 출판사가 참여한 전시회가 열려 북적댔고 기술, 심리학 등에 관한 영화 20여편이 상영되었다. 과학박물관 방문, 배 타기, 포도주 맛보기 등 흥미진진한 관광프로그램은 일일이 따라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개회연은 대학미술관에서, 최종 만찬은 야외극장에서 열렸고 대학광장에서 포도주와 치즈를 즐기며 담소하는 약식 파티가 여러번 있었다.

국제과학사・과학철학연합(IUHPS) 총회는 히버트(E. Hiebert)회장 주재로 두차례 열려 차기 회장으로 소련의 미쿨린스끼(S. R. Mikulinski)를 뽑았다. 20여명이 참가한 중공은 이번 회의에서 IUHPS에 가입하자마자 코(柯俊)가 감사에 피선되어 인기를 과시했다. 일본은 야노(矢野道雄)가 인도의 지지를 얻어 과학사교육위원장에 뽑혔다. 1989년에 있을 제18회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 신청한 서독의 함부르크와 뮌헨으로 확정되었다. 제19회는 인도, 제20회는 동독이 주최할 것을 비공식으로 희망했다. 한국은 언제나 국제과학사회의를 유치할 수 있을까? 총회장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 없었다. 대만은 3사람을 보냈는데 북한은 비자 때문인지 오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다.

회의 셔트를 입고 요세미티 관광을 떠나는 쓴 이 내외